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07호 [루게 제24620호] 주체103(2014)년 7월 26일 (토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원산구두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원산구두공장을 현지지도
하시였다.

황병서 동지, 리재일
동지, 한광상 동지가 동행하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공장의 일꾼들이 맞이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2009년
2월 이곳을 현지지도하시
며 공장에서 생산한 신발의
모양과 맵시, 무게에 이르
기까지 세심히 료해하시고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
다고 하시면서 그 관찰정형
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
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먼저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현지지도를 받은
이 공장 하나만 놓고보아도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로고와 심혈을 바쳐오시
였는가를 잘 알수 있다고 말씀하시
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연혁소개실
을 더 잘 꾸려 공장에 어려있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종업원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
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생산을 정상
화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자면 생산자
들의 정신력을 발동시키기 위한 사상



교양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
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출
작업반, 갑피직장, 제화직장 등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정형과 제품
의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신발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의 국산화와 제품의 경량화, 설비
현대화를 실현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꾼
들과 종업원들이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관철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원산구두
공장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
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신발공업
을 비롯한 경공업을 비약적으로 발
전시키는것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
활을 향상시키고 우리 나라 사회주
의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과시하
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계
절과 용도에 따라 신기에도 편리하
고 보기에 도 맵시있으며 가볍고

튼튼한 신발을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강조
하시였다.

공장에서는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 인민들의
호평을 받으며 자기 단위를 상징
하고 대외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신발을 생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그러자면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
화, 정보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
하고 품질감독체계를 바로세우며 경영
활동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상표도안도

잘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
면서 이곳에서 생산하고있
는 신발의 상표를 우리 군
대와 인민의 높은 기개
와 승리를 상징하는
《매봉산》으로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특성에 맞게 일터를 위
생문화적으로 알들히
꾸리고 생산문화, 생활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들려야 한다고 지시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신발생산의 량과 질을 결
정적으로 높이고 근로자
들의 노동조건과 생활환
경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
장해줄수 있도록 공장을
가까운 기일안에 완전히
일신시키자고 하시면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당
에서 직접 풀어주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자욱이 새겨
진 원산구두공장을 새 세기의 요구
에 맞고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멋쟁이공장으로 꾸린 다음
다시 찾아오시겠다고, 그날 종업원들
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으시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원산구두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인민사랑
의 뜻을 높이 받들고 신발생산과 제품질
제고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61호

주제103(2014)년 7월 17일 평양

싸움준비완성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인민군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데 대하여

분렬된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는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생전의 념원이며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인민군대가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가장 성스러운 사명이고 임무이다.

현정세는 전체 인민군장병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조국통일을 위한 싸움준비를 백방으로 완성함으로써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고 온 거리의 절절한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실한 인민군지휘성원들과 군인들은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하늘과 땅, 바다의 모든 전투현전장마다에서 백두산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싸움준비완성에서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나는 군력강화에 최대의 박차를 가할데 대한 당의 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무비의 헌신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싸움준비완성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인민군지휘성원들에게 뜻깊은 전승절을 맞으며 군사칭호를 다음과 같이 올려줄것을 명령한다.

- △ 항공군대장 오금철
- △ 특군상장 최귀현
- △ 해군소장 장철국
- 연성국 김태철 박광빈 한광호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시 도로관리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시 도로관리원들에게 감사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신 감사가 보통강구역도시시설관리소 도로관리원 리백화, 동대원구역도시시설관리소 도로관리원 동인숙, 순안구역 9.9절거터원림시설사업소 도로관리원 차춘옥, 평천구역도시시설관리소 도로관리원 김정실, 대성구역도시시설관리소 작업반장 전영실, 서성구역도시시설관리소

작업반장 안영희, 모란봉구역도시시설관리소 작업반장 신명옥, 락랑구역도로강화건설사업소 작업반장 전차금, 형제산구역도로강화건설사업소 작업반장 박명애에게 전달하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애민헌신의 로고와 불멸의 업적이 어려있는 평양시를 더 잘 꾸리는것을 혁명적본분으로, 숭고한 도덕의리로 간직한 그들은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오랜 기간 애국충정의 마음과 맘을 목욕히 바치며 도로들의 면모를 일신시키는데 이바지하시였다.

인민을 위한 사랑과 헌신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그러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도로관리에 깨끗한 광심을 다 바치셨다.

그들은 선군문화의 창조자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에 새기고 도로관리에 필요한 자재들을 자체로 보장하면서 도로의 정상관리, 정보수수를 책임적으로 함으로써 수도시민들에게 보다 위생문화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해주는데서 모범을 보이셨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받아안은 영광을 지닌 도로관리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일편단심 우리 당을 굳게 믿고 따르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애국충정의 열의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도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도 무관단 61부에 즈음하여 주도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받아안은 영광을 지닌 주도 무관단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일편단심 우리 당을 굳게 믿고 따르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애국충정의 열의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받아안은 영광을 지닌 주도 무관단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일편단심 우리 당을 굳게 믿고 따르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애국충정의 열의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판 무관이 25일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륭군대장 현영철동지에게 전달하시였다.

꽃바구니들의 맹기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씨가 씌여져있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유화동지의 가족과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이 꽃바구니를 드리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유화동지의 가족이 꽃바구니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받아안은 영광을 지닌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유화동지의 가족이 꽃바구니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받아안은 영광을 지닌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유화동지의 가족이 꽃바구니를 드리였다.

천재적인 군사전략가, 위대한 령장

국제사회계는 탁월한 군사사상과 독창적인 전법,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열렬히 격찬하고있다.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내발기 지휘관 위영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한세대에도 두 재주꾼의 이름을 따놓지 않은 령장이다.

주석께서는 탁월한 전략술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안기시어 세인을 놀래우는 위대한 승리를 안아오시였다.

전체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는 김일성주석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전승업적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몽골신문 《조리 메데》는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세계《화강》을 자랑하던 미국과 15개 추종국가군대, 남조선피뢰군, 구

일본군잔당들의 연합세력과 청소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대결에서 조선이 승리한것은 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기적이다. 미국은 조선전쟁에 방대한 침략부력을 동원하고 세 군무기와 화확무기까지 사용하였지만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자기들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미국력사상 처음으로 승리하지 못한 정전협정에 조인한 클라크는 《북조선군이 성공을 거둔것은 김일성장군의 유능한 지휘때문》이라고 실로하였으며 보르두갈 전 대통령 고메스는 《김일성장군이시아말로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천재적인 군사전략가, 위대한 령장이시라는것을 알게 되었다.》고 토로하였다.

같이 주체사상연구조직은 다음과 같이 성명하였다.

미국은 저들이 일으킨 조선전쟁 3년간 슬한 물적, 인적손실만 내고 1953년 7월 27일에는 세계의 면전에서 항복서나 다름없는 정전협정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안되였다.

조선인민의 조국해방전쟁에서의 빛나는 승리는 전적으로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신 김일성대원수각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김일성주석과 같은 세계적인 령장은 그 어디에도 없으며 전무후무할 것이다.

조선과의 친선협회 뽀스까지부는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 조선은 미래의 수적, 기술적우세를 정지 사상적, 전략기술적우세로 보기에 놀라버렸다.

조선인민의 승리는 미래의 내리막 길의 시초를 열어놓았으며 전세계에서 반미투쟁의 새로운 시대를 펼쳐 놓았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전승적영웅이신 김일성주석의 전승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승리의 7.27이 새겨주는 철리

◆ 뜻깊은 전승절을 맞으며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는 참관자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있다. 인민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의 대오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나하나의 전승물들을 보면 볼수록 우리 수령님께서 헤치신 전법의 불바다만리가 눈물겹게 어려와 솟구치는 걱정을 금할수 없다.》, 《우리 수령님을 모시지 못했더라면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되었겠는가. 어버이수령님이시야말로 민족생명의 은인, 위대한 정의의 수호자이시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빛나는 승리, 제2의 해방의 날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애고애무와 격경의 목소리들은 정령같이 울려다닌다.

《로부터 사람들은 생명을 구원해 준 은인에게는 죽어서도 은혜를 갚는다고 하였다. 하다면 제국주의의

철리로 또다시 노래의 운명을 강요당할면 하였던 우리 조국과 민족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있다. 인민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의 대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 수령님을 모시지 못했더라면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되었겠는가. 어버이수령님이시야말로 민족생명의 은인, 위대한 정의의 수호자이시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빛나는 승리, 제2의 해방의 날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애고애무와 격경의 목소리들은 정령같이 울려다닌다.

《로부터 사람들은 생명을 구원해 준 은인에게는 죽어서도 은혜를 갚는다고 하였다. 하다면 제국주의의

대와 인민은 백전백승하며 오직 선군의 길에 민족의 자주적존엄과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것, 바로 이것이 승리의 7.27이 새겨주는 고귀한 철리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빛내오신 선군혁명승리의 력사와 전통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꽃같이 이어지고있다.

우리는 대를 이어 위대한 선군령장을 전두에 모신 크나큰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선군혁명승리의 영예를 계속 높이 떨쳐나가야 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선군령도업적, 전승업적을 백승의 지침으로, 민족의 만년제보로 끝없이 빛내어나가야 한다. 누구나 1950년대의 수령길사유위정신, 조국수호정신,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며 반미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말디브제도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말디브제도공화국 대통령 아브둘라 야민 아브둘 가이움각하

나는 말디브특별전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끊임없이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3(2014)년 7월 25일 평양

포화속에 수놓아진 이야기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공화국정부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일을 맞이 할 때마다 비록 전쟁시기이지만 연회를 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국수 만류하시며 뜻깊은 반생일들을 어느때와 다름없이 보내시였다. 주제 4(1951)년 4월 15일도 그렇게 보내시였다.

그때 공화국내각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일에 즈음하여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다함없는 축원의 마음을 담아 연회를 차리려고 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아시였는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각의 한 일군을 부르시어 생일상을 차리

지 말라고 엄하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지금 우리 전사들이 고지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고있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결국 내각에서 차리려고 하였던 연회는 취소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처럼 자신의 생일상을 차리지 못하게 하시면서도 전사들의 생일은 잊지 않으시고 깊이 마음을 쓰시였다.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사들을 최고사령부 지휘처식당으로 부르시였다.

당문을 모르고 달려온 전사들을 둘러보신 어버이수령님께서 는 오늘 식사나 같이하자고 하시면서 한 전사를 정답게 바라보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오늘이 그의

생일이라고 알려주시면서 그가 일곱살때 부모를 잃고 어린시절부터 아동단원으로 생활하였고 항일유격대에 들어왔다고, 그러다보니 아마 지금까지 따뜻한 생일상을 한번 받아보지 못했을것이라고, 별로 차린것은 없지만 자신의 성의로 알고 기쁜 마음으로 식사를 하고도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어 사랑의 생일상을 마추한 전사에게 어서 많이 들라고 다정히 이르시였다.

자신의 생일상은 만류하시고 전사들의 생일상은 잊지 않고 차려주시어 위대한 수령님!

포화속에 수놓아진 이 이야기도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남기실수 있는 전설이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참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즈음하여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25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참관하였다.

참관자들은 먼저 전승열병식 광장에서 담배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전승기념탑 《승리》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돌리셨다.

참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선군혁명업적, 우리 인민군인들과 인민들의 영웅적 투쟁정신과 위훈이 집대성된 기념탑의 여러 관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전회의 나날 독창적인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하시며 전

당, 전군, 전민을 전쟁승리로 이끌어주시어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거룩하신 영상을 우러르며 그들은 회색의 전승적영웅, 비범한 선군령장의 위인적풍모를 다시금 깊이 새겨안았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쟁시기에 리용하신 승용차와

천서, 친필명령서, 작전지도를 비롯한 사적물들과 사적자료들을 보면서 존엄한 전쟁의 중화를 한몸에 지니시고 불분불휴의 로고와 실험을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고귀한 혁명생애가 가슴에 안겨와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선군혁명업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선군혁명승리탑에서 그들은 한평생 혁명의 최전방에 계시면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시고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억년기들을 마련해주시어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헌신과 로고를 더욱 깊이 절감하였다.

그들은 서울해방전대현관 경화관, 대전관 등 여러 관들에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애도 서슴없이 바쳐싸운 영웅전사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자료들을 깊이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은 참관을 통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선군혁명업적을 깊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따라 반미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데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갈 결의를 가다듬었다.

【조선중앙통신】

영웅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이렇게 싸워이겼다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주요 전투들 (2)

세계전쟁사에 있어본적 없는 주체전법으로



직사포를 교지애로



내 조국의 푸른 하늘에 한대의 적기도 열신 못하게



진지들을 갱도화하기 위한 투쟁



용감한 망크사냥군 조원들

청천강일대에서 적포위전
1950년 11월 25일-12월 5일
조국해방전쟁 제3계단 2차 작전기간에 전선서부에서 활동한 조선인민군 편함부대들이 제2전선부대들과 협동밀에 청천강일대에서 적을 포위수멸한 작전.

적의 《총공세》를 짓부시고 반공적으로 넘어가 미제침략군 1,9군단과 괴뢰군 2군단 부대들을 청천강과 대동강상류지역에 압축하여 대량적으로 포위수멸하고 전선서부의 적을 완전히 붕괴시켜 버렸다.

이 제2전선부대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배합하여 적들을 맹렬히 추격하여 해방했다.

제2차 서울해방전투
1951년 1월 4일
전선서부의 아군편함부대들은 공격속도를 더욱 높이며서 퇴각하는 적들을 맹렬히 추격하여 서울을 다시 해방함으로써 적들의 사기를 떨치고 인민들에게 승리에 대한 신심을 더욱 굳게 하여주었으며 전선에서 적들을 37°선에서 이남으로 신속히 몰아낼수 있게 하였다.

작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

마전리 전투
1950년 11월 2일-11월 8일
조국해방전쟁 제3계단시기 조선인민군 제2전선부대들이 진행한 습격 및 매복전투. 마전리를 전진하고 전선중부와 서부간의 연계와 전선수송을 보장하려고 발악하는 적들을 사면에서 포위하고 신속히 적들을 불타고 공포속에 몰아넣었으며 인민군대의 전방전투작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

매복조는 38°선중간방어를 조직하려고 편성에 기여했다가 달아나던 미제침략군 8군 사령관 위커를 포함한 적장교 80여명을 살상하고 탱크 1대, 자동차 8대를 불살라버렸다. 전곡리전투의 승리는 조선인민군 공병대부조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매복전에 관한 사상을 높이 받들고 조형된 정황에 알맞은 매복전법을 능숙히 적용하고 용감무쌍하게 적을 죽인 결과에 이룩된 빛나는 결실이었다.

장진호반 전투
1950년 11월 27일-12월 6일
장진호반일대에서 행동한 조선인민군 편함부대들이 미제침략군 10군단 주력부대를 포위수멸한 전투.

이 전투에서 미 1해병사단장 스미스는 《무덤장군》이라는 별명을 받게 되었으며 미국기자들이 보도한 기사에서도 사단의 몰락을 보고 《미해방대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퇴각》이라고 보도하였다.

제1차 철원해방전투
1950년 11월 8일-11월 9일
적에서 활동하던 제2전선의 한 부대가 철원을 해방한 전투. 적의 전선과 후방, 적의 전선 서부와 동부를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이며 군사적으로 중요한 철원은 제2전선부대의 대담한 습격전투로 해방되었다.

춘천, 가평해방전투
1950년 11월 18일-11월 23일
제2전선부대들은 전선서부와 중부에 대한 적들의 중요한 보급기지, 교통요충지를 장악하고 활동지역을 더욱 넓혀나가기에 이르렀으며 적의 아성인 서울을 위협하였다.

양구군 662.6고지전투
1950년 12월 25일
양구서남쪽 25km지점에 있는 적의 강화된 지평지인 추곡령에 있는 662.6고지 일대에서 아군의 진입을 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적들을 쳐부시고 고지를 점령함으로써 아군 편함부대들이 적배후로 성과적으로 들어갈수 있게 하였다.

해주해방전투
1950년 12월 22일
전선서부의 아군편함부대들이 제2전선부대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배합하여 적들을 맹렬히 추격하여 해방했다.

제2차 철원해방전투
1950년 11월 20일-11월 25일
적의 전선진출기도를 분쇄하고 퇴각로를 차단함으로써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기본 전선에서의 아군부대들의 반공적

투쟁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

전곡리 전투
1950년 12월 13일
전선 제3계단 2차작전시기 제2전선 편함부대의 한 공병대부조가 진행한 매복전투. 전곡리는 경기도 련천군 남쪽 38°선에서 자리잡고있다.

원주해방전투
1951년 1월 7일-1월 8일
전선 제3계단 3차작전시기 조선인민군의 한 편함부대가 원주일대에서 미제침략군 1개 사단과 괴뢰군 2개 사단에

하늘의 눈송이도 속삭이듯, 푸르다로 내리가는가. 떠돌이 중대의 누구나 기쁨에 넘쳐 웨었다.

《우리 중대에 첫 영웅이 나왔다!》

영차, 영차, 어깨우로 영웅을 추켜올린 전우들의 얼굴

마다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다. 감격과 흥분으로 온 중대가 들끓는다.

무수한 지휘원을 넘고 삼엄한 경계망을 뚫으며 우리의 영웅은 얼마나 멀고 험한 습격의 길 헤쳐왔는가. 나이는 비록 어리여도 원

수적들의 길에서 세운 군공은 크고도 높아 구대원들도 지휘관들도 한 마음으로 영웅을 떠받들어올린다.

공세 우고 돌아오라던 고향의 어머니에게 오늘날은 전사도 편지를 쓰리라.

《어머니, 나도 놀라게 큰 훈장을 받았습시다. 영웅이 되었습시다.》

《적들이 차지한 고지에서 대오는 일찌기 산개하여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지나 머리를 들어보니 글썽 저 혼자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나는 깜짝 좋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싸움을 잊은듯, 전쟁과는 인연없는듯...

포연탄우속에서 조국의 한지 땅을 두고 백병전을 벌리던 전사들이 우렁찬 노래를 부른다. 북수의 총 으르러기 들려잡았던 손마타에 악기를 잡고 온넛을 다하여 썩

썩하고 아름다운 선물을 연주해간다.

불타는 고지와 전초기에서 자재로 화선악기를 만들어 화선음악회를 하던 인민군용사들의 마음은 평양으로 끌었어 달리고있다.

《피마, 어서 떠개. 분대장의 명령이야.》

불시에 지휘관들에 대한 그리움이 북받쳐올랐다.

저도모르게 흘러내리는 눈물을 손등으로 쓱 문지르며 그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기어이 우리 분대, 우리 편대를 찾아가리라.

《왜요, 어서 떠개. 분대장의 명령이야.》

불시에 지휘관들에 대한 그리움이 북받쳐올랐다.

저도모르게 흘러내리는 눈물을 손등으로 쓱 문지르며 그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기어이 우리 분대, 우리 편대를 찾아가리라.

영생불멸의 혁명 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한명의 전투원이 귀중한 때에 전선에서 군인들을 때려 큰 규모의 예술축전까지 마련해주신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

한없이 그리운 그이를 우리러 전사들은 한목소리로 목청껏 노래를 부른다. 돌격의 길에서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의 마음까지 합쳐 전승의 광장 안고 갈 심장의 노래를 합창한다.

《현대장동지, 왜 아직도 전후 정황에서 소식을 없을까요?》

리인수는 죽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살아있다는 놀라움보다도 얼굴도 채 익히지 못한 병사를 위해 목숨도 내는 소대장이 있다는것이 더욱 놀라웠다. 그런 놀라움은 전투가 거듭될수록 더욱 커졌다.

《피마, 어서 떠개. 분대장의 명령이야.》

불시에 지휘관들에 대한 그리움이 북받쳐올랐다.

저도모르게 흘러내리는 눈물을 손등으로 쓱 문지르며 그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기어이 우리 분대, 우리 편대를 찾아가리라.

심대한 타격을 주고 원주를 해방한 전투로서 전선서부에서 행동하는 인민군편함부대들의 공격속도를 일층 높이고 하고 전쟁 제3계단 3차작전방향을 관철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수리산 전투
1951년 2월 3일-2월 5일
전선 제3계단시기 전선서부에서 활동하던 조선인민군의 한 구분대가 진행한 전투.

군부대들을 서울과 문산사이에서 《포위수멸》하러던 적들의 기도를 과탄시켰으며 전선서부에서 행동한 인민군부대들의 차후작전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였다.

문산지역전투의 승리는 적들을 감쪽같이 속여넘기는 림기용면의 전술로 적의 항공폭격대를 공간지대에 투하시켜놓고 불의에 타격하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예술의 승리이다.

리제, 자평리 전투
1951년 4월 22일-4월 24일
전선 제3계단 5차작전시기에 전선동부에서 행동한 조선인민군 편함부대들이 괴뢰 3, 5, 7보병사단 부대들을 포위수멸한 전투.

이 전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주체전법의 요구를 훌륭히 관철한 전투의 하나로서 협소한 산악지형의 특성을 훌륭히 이용하여 적집단을 포위수멸한 또 하나의 모범이었다.

감악봉 전투
1951년 2월 18일-2월 19일
조선인민군의 한 구분대가 전술적으로 중요한 감악봉(남강원도와 충청북도의 경계를 이루는 제천-원주도로를 끼고 제천서북쪽 약 12km, 원주동쪽 5km지점에 있는 고지)을 점령하고 그곳을 지켜싸운 전투.

동해안에서의 상륙작전과 배합하여 지상전선에서 새로운 공격을 감행하려고 획책하던 적들의 기도를 알렸던 것부터버림으로써 선형한 작전들의 성과를 공고히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현리포 전투
1951년 5월 16일-5월 18일
전선 제3계단 5차작전시기 조선인민군 편함부대들이 전선 동부의 현리포에서 괴뢰 3, 9보병사단을 포위수멸한 전투.

이 전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주체전법의 요구를 훌륭히 관철한 전투의 하나로서 협소한 산악지형의 특성을 훌륭히 이용하여 적집단을 포위수멸한 또 하나의 모범이었다.

문산지역에서의 적항공폭격전대의 전투
1951년 3월 23일-3월 24일
전선 제3계단 4차작전시기 문산지역에 투하된 미제침략군 항공폭격대를 수멸한 전투.

이 전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주체전법의 요구를 훌륭히 관철한 전투의 하나로서 협소한 산악지형의 특성을 훌륭히 이용하여 적집단을 포위수멸한 또 하나의 모범이었다.

1211고지방어전투
1951년 8월 18일-11월 12일
전선 제4계단시기 전선동부에 있는 아군의 중요지평지인 1211고지를 수호한 영웅적 방어전투.

이 전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주체전법의 요구를 훌륭히 관철한 전투의 하나로서 협소한 산악지형의 특성을 훌륭히 이용하여 적집단을 포위수멸한 또 하나의 모범이었다.

적의 《하기 및 추기공세》를 격파한 전투
1951년 12월 25일
양구서남쪽 25km지점에 있는 적의 강화된 지평지인 추곡령에 있는 662.6고지 일대에서 아군의 진입을 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적들을 쳐부시고 고지를 점령함으로써 아군 편함부대들이 적배후로 성과적으로 들어갈수 있게 하였다.

이 전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주체전법의 요구를 훌륭히 관철한 전투의 하나로서 협소한 산악지형의 특성을 훌륭히 이용하여 적집단을 포위수멸한 또 하나의 모범이었다.

우리 마을, 우리 학교를 우리의 힘으로 지키자



하게 울려다보던 그는 마침내 절단을 내렸다.

위대 한 명도 자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우세한 미제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것은 수령님의 현명하고 신랄한 지휘로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이 굳게 단결하여 생사를 같이하면서 용감하게 싸웠기때문입니다.》

《적들이 차지한 고지에서 대오는 일찌기 산개하여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지나 머리를 들어보니 글썽 저 혼자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나는 깜짝 좋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적들이 차지한 고지에서 대오는 일찌기 산개하여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지나 머리를 들어보니 글썽 저 혼자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나는 깜짝 좋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적들이 차지한 고지에서 대오는 일찌기 산개하여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지나 머리를 들어보니 글썽 저 혼자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나는 깜짝 좋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위훈에 대한 고백

죽음이 당장 손을 내밀것만 같았다. 내발걸음으로 한지 도 한지...

어렵게 작으로 나무가지를 움켜잡는 내내없이 모난 돌이 굴러내려오더니 정면으로 얼굴을 때렸다. 소리가 더 크게 번지면 끝장이었다. 그는 피호르는 얼굴로 무작정 그 등을 덮었다.

《소대장동지가 이렇지 나를 덮어줬지.》

《왜요?》 하고 웨치며 누군가가 비호같이 날아와 그의 몸을 꼭 덮었다.

《그런데 바로 옆드린 그의 눈앞에서 수류탄이 뱅글뱅글 돌아갔고있지 않습니까.》

《클직한 손이 그 수류탄을 덩실잡았다. 적전에서 날아왔던 수류탄은 다시 적전으로 날아갔다.》

리인수는 죽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살아있다는 놀라움보다도 얼굴도 채 익히지 못한 병사를 위해 목숨도 내는 소대장이 있다는것이 더욱 놀라웠다. 그런 놀라움은 전투가 거듭될수록 더욱 커졌다.

《적들이 차지한 고지에서 대오는 일찌기 산개하여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지나 머리를 들어보니 글썽 저 혼자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나는 깜짝 좋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적들이 차지한 고지에서 대오는 일찌기 산개하여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지나 머리를 들어보니 글썽 저 혼자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나는 깜짝 좋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적들이 차지한 고지에서 대오는 일찌기 산개하여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지나 머리를 들어보니 글썽 저 혼자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나는 깜짝 좋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제는 조선전쟁도발의 책임과 패배자의 운명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참패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최근년간 미국은 지난 조선전쟁에서 저들이 당한 참패를 《승리》로 둔갑시켜보려고 여러차례 판대국을 흔잡 연설하여 세상사람들의 조소를 받고 있다.

2012년 미국회에서는 지난 조선전쟁에서 미군 3만 6000여 명이 죽고 10만여명이 부상당했다는 것, 조선전쟁을 더이상 《잊혀진 전쟁》으로 되게 하지 말고 기억하며 전쟁에 참가한 병사들을 찬양하여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그 무슨 《결의안》이라는것을 채택하였다.

미회제정은 6.25전쟁은 원래 저들이 《이진 전쟁》이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과 월남전쟁사이에 끼여있어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워왔다는 어처구니없는 꾀번도 내뿜는가 하면 이제 이 전쟁을 《잊혀진 전쟁》로 다시 평가할 때가 되었다는 황당한 수작도 하고 있다.

조선전쟁이 미국에서 흔히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운것은 크고작은 침략전쟁을 하도 많이 감행하여 전쟁사에서 실수로 빼놓는것도 아니고 《승리》로 기록된것은 더욱 아니다.

조선전쟁에서 당한 참패가 너무나 크고 망신스러워 그것을 삼기하면 악몽밖에 생길것이 없었기때문에 차라리 잊어버리는것이 낫겠다고 호전파들이 자체위안을 한데서 찾은 궁여지책이었다.

입باط 내기조차 지어하던 1950년대의 조선전쟁을 미국이 난데없이 《잊혀진 승리》로 둔갑시켜 선전하는것은 그때 당한 쓰디쓴 참패에서 교훈을 찾은 대신 그것을 어떻게 하나 만회하고 침략야망을 기어이 이루어보겠다는것이다.

미국은 지금 이 시각에도 조선반도 주변에 미군과 핵무기를 포함한 승한 전쟁수단들을 배치해놓고 새로운

조선침략전쟁을 펼칠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 구체적인 작전계획을 세워놓은 미국의 조선침략전쟁에 들어갈 무력의 규모까지 확정해놓고 있다.

미회제정은 일본, 남조선피괴들과 공작적결탁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조선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발방하고 있다. 미회제정은 조선전쟁을 상상시키는것으로 자국내에 대조선적대감정을 고취하고 청년들을 새로운 북침전쟁도발에 내몰려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조선전쟁에 대해 퇴색될수록 무서운 악몽속에 허덕이게 될것이다.

역사는 공정한 심판관이다. 누가 조선전쟁에서 승리하고 누가 참패를 당하였는가를 하는것은 이미 역사가 확정해 주었다.

적들이 전쟁을 도발하자마자 되타격을 받고 어떻게 남쪽으로 출행령을 놓았는가 하는것을 우선 보자.

전쟁발발 3일만에 서울이 해방되고 10만명의 적군주력이 분쇄되었을 때 《뉴욕 타임스》를 비롯한 미국신문들은 《...많은 미국군사고문들은 한강을 헤엄쳐서 건너지 않으면 안되었다. 서울남방도로에서 두어개에 배낭을 걸머지고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도망하는 남조선내무장관의 당황한 모습도 보였다.》라고 보도하였다.

《상상사단》이라고 하면 미 24사단의 선진대인 스미스공대는 오산계선에서 우리 인민군의 강력한 타격을 받고 순식간에 통지박산났다.

당시 미군사고문들이 평하였듯이 《오산의 비극》으로 《미군의 비극적 인 패주의 철막》이 열렸다. 《볼티의

선》이라고 장담하던 금강방어전지도 어느 한 나라의 군사전문가의 말처럼 《가을바람이 우수발을 건너가듯》 돌파당하였다.

미 24사단은 대전에서 독안에서 뒤늦게가 되어 포위섬멸되고 병사복을 갈아입고 살구명을 찾던 사단장 편은 인민군대 나어린 병사에게 사로잡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미 8군사령관이었던 워커는 인민군적후부대의 매복에 걸려 황천국이 되고말았다.

미회제정 제1사단 사단장이었던 스미스는 조선전쟁에서 자기 병사들을 모조리 황천개로 만들어놓은것으로 하여 무덤장군이라는 별명을 얻어가지게 되었다.

조선전쟁사에는 《바다우에 떠다니는 섬》이라고 불리우던 미제중순양함 《볼티모》호가 주문진앞바다에서 단 4척의 조선인민군 해군 어뢰정의 맹렬한 공격에 의해 수장된것도 기록되었다. 이것은 세계해전사의 기적으로 되고있다. 미국이 조선전쟁에서의 《승리》를 운운하기에는 패배가 너무나도 비참하다.

조선전쟁에서의 미제침략군의 집단인 탈주자 어떻게 이어졌는가를 더 보자.

당시 미해군 검사총장 맥클리프는 공식발언에서 1952년말까지 《조선전쟁개시시때 미해군의 탈주병만도 4만 6000명에 달한다.》고 했다.

미육군에서는 월정군 2만명, 때로는 하루 3000명의 탈주병이 생겨났다. 미국의 어느 한 비밀보고서에는 《지난 조선전쟁은 미국이 패하고 미국의 장성들이 제일 많이 죽고 철적진 전쟁으로 특징지어진다. 김일성장군의 전법이 얼마나 유명한지 3년전의 전쟁에서 그 전법이 걸려 패한 뒤로 여러명의 《유엔군》사령관들과 미 8군사령관들이 교체되었 다. 마지막에는 돌이킬 장성이 없었다. 《이름난 원수》라고 하던 맥아더와 아이젠하워도 그 전법에 걸려 패 하고말았다.》라고 씌여있다.

역사적사실들은 호전파들이 분별을 잃지 말것을 경고하고있다.

미국은 잘못 고른 장소에서 잘못

고른 시간에 잘못 고른 대상과 잘못 된 전쟁을 치렀다고 한 미제살인장군들의 비명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만일 미국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또 다시 이 땅에서 침략의 불을 지르다 면 사태는 살인장군들의 비명정도로 그치지 않을것이다. 미제와 지금까지 벌린 모든 전쟁들은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서 감행되었다. 따라서 미국령토에는 포탄 한발 날아들지 않았다. 지난 조선전쟁 역시 그러했다. 미제에 의해 우리 조국강토는 말도 대도 불바다, 폐허로 변하였지만 미국령에는 단 한발의 폭탄과 포탄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은 사정이 다르다는것

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미국이 감히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는 경우 침략군이 발붙이 고이는 모든 곳을 타격할것이며 침략의 아성을 제거루로 날려보낼것이다.

새로운 조선전쟁의 첫 단계에서 미군의 사상자가 10만명이상이 나을다는것은 미국이 진정한 공포터로의 전쟁의 결과이다.

미국이 우리의 신성한 조국강토를 한치라도 침범한다면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과 인민은 침략자들에게 천백배의 보복타격을 안길것이다.

미국이 제2의 조선침략전쟁도발을 통하여 얻을것이란 지난 조선전쟁시기와는 대비할수 없는 쓰디쓴 참패와 죽음을 뜻한다.

미국은 지난 조선전쟁에서 당한 참패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리 현 도



전쟁승리의 결정적요인

◇전쟁은 지휘관의 두뇌전이라고 할수 있다. 전쟁승리의 요인이 결코 수적우세나 기술적우세에 있는것이 아니라라는것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승리가 실증해 주었다.

지난날 부르주아군사전문가들은 무장장비의 우세를 전쟁승리의 결정적요인으로 내세우면서 《무기만능론》을 제창하였다.

영국은 16세기에 에스파냐의 《무적함대》를, 19세기 초엽에 프랑스의 나폴레옹의 함대를 격파한 후 유럽제해권을 장악하고 《합선우세론》을 떠들었다.

미국은 미제국이원판드는 땅크가 우세하면 세계를 제패할수 있다는 망상을 가지고 《땅크우세론》을 부르짖었다.

그러나 1950년대 조선전쟁은 제국주의자들의 《무기만능론》을 산산이 짓부셔버렸다.

1950년 6월 25일 조선전쟁을 도발한 미제는 자기 나라 육군의 3분의 1과 공군의 5분의 1, 태평양함대의 대부분을 동원하고 1650억US\$의 군사비를 낭진하였지만 제2차 세계대전시기 태평양전쟁에서 입은 손실의 2, 3배에 달하는 인적, 물적손실을 내고 우리 인민앞에 무릎을 꿇고말았다.

후남 조선전쟁에 참가하였던 마카오주둔 보르투갈군 참모장이었던 보르투갈 전 대통령 고 에스는 이렇게 회고하였다.

《당시 미국이 만든 작전계획은 미국편에 선 서방나라들의 참모장들, 군사전문가들이 수십명의 장군들이 여러차례 모여서 토의한 끝에 만든것이다. 그런데 김일성장군님께서는 그것을 단적으로 격파하셨다. 나는 이것을 내눈으로 보고 김일성장군님이시야말로 이 세상에 한발밖에 없는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시며 위대한 평장시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위대한 김일성장군은 전쟁승리에 작용하는 결정적요인을 주체적관점에서 밝히시고 조국해방전쟁을 승리해 온 이집 백전백승의

강령의 명장이시다.

전쟁승리의 결정적요인은 무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사상의식이다. 사상이 투철하지 못한 병사의 무기는 막대기보다 못하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상의식이 전쟁승리에 작용하는 결정적요인이라는 사상은 수령님께서 밝히신 독창적인 사상입니다.》

위대한 김일성장군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의 기간 전쟁승리의 결정적요인이 군대와 인민의 정치사상적우월성에 있다는 주체적관점으로 부터 출발하시어 독창적인 군사전략과 전술을 내놓으셨을뿐 아니라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고 전쟁승리에로 불려 일시키기 위대한 큰 힘을 쏟으셨다.

특히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적용된 적극적인 전지방어전과 비행기사냥군조운동, 땅크사냥군 조운동을 비롯한 세계전쟁사에 일찍이 없었던 독창적이며 탁월한 군사전법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주체적인 군사사상에 기초하여 제시하신 백전백승의 전법들이며 최고사령관동지의 작전적주장을 실현하는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여기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용감하게 싸운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정치사상적우월성에 의하여 발휘된 필승의 전법들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군사사상과 그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치사상적단결, 바로 여기에 갖 창건된 청초한 우리 공화국이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누르고 자기의 존엄과 위용을 영예롭게 지켜낼수 있는 비결이 있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앞으로 위대한 대원수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지난 1950년대에 발휘된 백전백승의 전통을 영원히 계승해나갈것이다.

불을 지른자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을!

1953년 7월 27일은 미국에 있어서 레사로운 날이 아니었다. 바로 이날 건국래 110여차례의 침략전쟁에서 단 한번도 패한적이 없었다는 미국이 저들이 도발한 전쟁에서 수치스러운 대참패를 당하고 조선인민앞에 항복서를 버치였다. 조선전쟁에서의 패배가 느끼는 치욕이 아니라 세계사에 군림하던 미제의 거만성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그들의 비극적인 운명의 시막을 알리는 결정적인 계기로 되었다.

미국은 청초한 우리 공화국을 너무나 쉽게 해서는 우리가 반대로 평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있다는 그럴듯한 강한 인상을 언론계에 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유엔총회 제4차회의에서 《조선에서의 군사분쟁》을 《잠시》, 《보고》한다는 미명하에 조선전쟁도발의 진상을 가리우고 흑백을 전도할 사명을 지닌 제3차 《유엔조선위원단》을 조직해냈다. 한편 조선전쟁도발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에도 제기할 《기초문건》들과 《결의안》들도 미리 꾸었다. 세계여론을 기만 위한 침략전쟁무력이었다. 미국인들자체가 《실체로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월가의 전쟁은 그의 장군들이 남조선에 발을 들이던 1945년 9월에 시작되었다.》고 자인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미제와 괴뢰들이 1947년부터 전쟁도발직전까지 38° 선일대에서 무려 5150여차례의 무장도발을 감행한 사실자로 하나만 놓고보아도 그들이 전쟁도발에 불을 달기 위해 얼마나 획책하고있었는가를 충분히 알수 있다.

1950년 6월 25일, 군사적도발을 일삼아오던 미제는 끝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을 개시하였다.

조선전쟁은 철두철미 미제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도발한 범죄적인 침략전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마치도 전쟁이 우리때문에 일어났것처럼 여론을 오도하였다. 저들의 추종국가부리들을 신속히 조선전쟁에 투입하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도발당사자인 미국과 그 주구들의 행적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1949년 10월 리승만의 미국인 개인장정교문은 역대에게 공격이 가장 좋은 상책이며 때로는 유일한 방이라는 점에 찬동한다. 침략의 무명을 벗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반대로 평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있다는 그럴듯한 강한 인상을 언론계에 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유엔총회 제4차회의에서 《조선에서의 군사분쟁》을 《잠시》, 《보고》한다는 미명하에 조선전쟁도발의 진상을 가리우고 흑백을 전도할 사명을 지닌 제3차 《유엔조선위원단》을 조직해냈다. 한편 조선전쟁도발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에도 제기할 《기초문건》들과 《결의안》들도 미리 꾸었다. 세계여론을 기만 위한 침략전쟁무력이었다. 미국인들자체가 《실체로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월가의 전쟁은 그의 장군들이 남조선에 발을 들이던 1945년 9월에 시작되었다.》고 자인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미제와 괴뢰들이 1947년부터 전쟁도발직전까지 38° 선일대에서 무려 5150여차례의 무장도발을 감행한 사실자로 하나만 놓고보아도 그들이 전쟁도발에 불을 달기 위해 얼마나 획책하고있었는가를 충분히 알수 있다.

1950년 6월 25일, 군사적도발을 일삼아오던 미제는 끝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을 개시하였다.

조선전쟁은 철두철미 미제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도발

한 범죄적인 침략전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마치도 전쟁이 우리때문에 일어났것처럼 여론을 오도하였다. 저들의 추종국가부리들을 신속히 조선전쟁에 투입하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도발당사자인 미국과 그 주구들의 행적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1949년 10월 리승만의 미국인 개인장정교문은 역대에게 공격이 가장 좋은 상책이며 때로는 유일한 방이라는 점에 찬동한다. 침략의 무명을 벗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반대로 평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있다는 그럴듯한 강한 인상을 언론계에 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유엔총회 제4차회의에서 《조선에서의 군사분쟁》을 《잠시》, 《보고》한다는 미명하에 조선전쟁도발의 진상을 가리우고 흑백을 전도할 사명을 지닌 제3차 《유엔조선위원단》을 조직해냈다. 한편 조선전쟁도발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에도 제기할 《기초문건》들과 《결의안》들도 미리 꾸었다. 세계여론을 기만 위한 침략전쟁무력이었다. 미국인들자체가 《실체로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월가의 전쟁은 그의 장군들이 남조선에 발을 들이던 1945년 9월에 시작되었다.》고 자인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미제와 괴뢰들이 1947년부터 전쟁도발직전까지 38° 선일대에서 무려 5150여차례의 무장도발을 감행한 사실자로 하나만 놓고보아도 그들이 전쟁도발에 불을 달기 위해 얼마나 획책하고있었는가를 충분히 알수 있다.

1950년 6월 25일, 군사적도발을 일삼아오던 미제는 끝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을 개시하였다.

조선전쟁은 철두철미 미제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도발

특파기자는 조선전쟁이 일어난 직후에 쓴 글에서 《이런 전쟁만은 완전히 준비되어있는 일은 우리들의 력사가 시작된 적이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였다.

조선전쟁방위의 주역을 맡았던 맥아더 역시 《이 전쟁은 나의 계획이었다.》고 실로하면서 침략전쟁을 도발한 죄행을 스스로 고백하였다. 사실들은 조선전쟁도발의 원흉, 전범인이 누구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이 땅에서 전쟁의 포성이 멎은지도 61년이 되어온다. 그러나 아직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전쟁도발의 진상을 흑막속에 덮어버리고 적반하장으로 우리 공화국을 《도발자》로 매도하면서 압살책동에 광분하고있다. 조선이 어떻게 해서나 《침략자》로 둔갑시켜 기어코 전쟁의 불을 질러놓고 전조선반도를 타고 앉자는것이 미국의 목표이다. 이것은 미제의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연장이며 그 직접적산물이다.

미국은 세계제패전략실현의 1차적과녁을 우리 공화국으로 정하고 각이한 대조선전쟁각분들을 부단히 수검보충하고 최종완성해놓았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책동이 본격화되고있다. 우리 공화국을 직접 겨냥한 대대적인 첨단살인장비들의 등장과 모험적인 군사적도발, 대규 모전연습 등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올해에도 미국은 남조선괴뢰들과 함께 《키 리콜》,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벌이며 강행하고 1993년에 최대규모의 연합상륙훈련과 사상 최대규모의 연합공중훈련을 벌려놓아 조선반도정세를 전쟁경계로 몰아갔다. 조선반도는 여전히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일촉즉발의 전쟁위험지대로 되고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우리의 있지도 않은 《도발》과 《위협》을 목이

쉬도록 제창하고있으니 그야말로 불순한 것을 저지르고도 몽둥이를 들고 배에서 행진에 나서는 도적의 행태 그대로이다. 침략의 피수이고 도발과 위협의 주범이며 평화파괴의 원흉인 미국의 괴뢰치한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미국은 오산하고있다. 전쟁도발자들에게 차베질것은 무자비한 징벌과 비참한 운명뿐이다. 조미대결전의 력사가 현실로 증명해 주고있다.

아침은 해에서 먹고 점심은 평야에서 먹으며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다고 호언장담하던자들이 전쟁을 도발하자마자 되타격을 받고 남쪽으로 출행령을 놓았던 물골, 장진호안의 눈두부지속에 죽음의 공포에 떠던 고통병들의 처절한 모습, 이 땅에 얻어맞고 바다깊이 추락한 중순양함 《볼티모》호, 《하늘의 요새》라던 CB-29 《전략폭격기들의 잔해들이 주는 교훈을 미국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내 나라의 명예와 평공을 침범하였던 《푸에블로》호와 대형간첩비행기의 말로는 또 얼마나 다행하였던가.

우리 공화국은 만일 미제가 력사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른다면 그 순간부터 비참한 운명의 분초를 다루는 가장 고달픈 시간을 보내게 될것이라는것을 이미 선언하였다.

결코 빈말이 아니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도당이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유린하며 우리를 겨냥한 전쟁책동에 매여 달려들수록 우리의 보복행동으로 적들을 무지못하게 쓸어버릴것이며 도장을 찍을 눈도 없게 만들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더욱 굳어져지고있다.

비참한 파멸의 운명은 불을 지른자들에게, 통쾌한 승리는 정의의 수호자들에게 있다는것을 미국은 명심해야 한다.

현 영 회

조선전쟁에서 녹아난 미제침략군의 가련한 물골



▲ 보라! 조선전쟁의 불을 질렀다가 대참패를 당하고 포로신세가 된 고통병들의 행렬을,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거만한 낮찍을 조선전쟁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저들의 처지가 이토록 비참해질 줄 몰랐을것이다.

자기가 아니라 3년동안 전쟁을 치르 고도 미국은 침략야망을 이루지 못하였 다. 오히려 전쟁사상 가장 비참한 패배 와 처욕을 당하였다.

그나마 제 패병들은 목숨이라도 건졌다고 안도의 숨을 내쉬고있을것 이다.



▲ 끝간데없이 세워진 무수한 십자가들, 무주고혼의 신세가 된 침략자들의 무덤앞에서 공포와 수심이 잡겨 서있는 미제 1해병사단장 스미스의 물골은 불 수복 비참하다. 크리스마스성찬을 고향에 가서 먹기 될것이라고 희망고 넘어 다던 침략부리들이 장진호반일대에서 무리죽음을 당하고 십자가위에 영혼히 묻히었다. 그토록 고대하던 말뚝크 리스마스축배대신 쓰디쓴 패전의 교배 를 마시게 될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 다. 패전장군에 무덤장군이라는 별명

조선인민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성을 보인다

여러 나라 인사들 담화 발표, 인터넷에 특집

6. 25-7. 27. 27. 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쓰브리아의 새 유고슬라비아공산당 총서기 바브리크 미요비치가 18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미국은 지난 조선전쟁에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면서 교훈을 찾은 대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에 광분하고있다. 최근에만도 미국은 남조선에 핵항공모함 《지키 워싱턴》호라격단을 끌어다놓고 대규모해상연습을 벌려놓음으로써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또다시 엄청난 난관을 조성하였다.

쓰브리아의 새 유고슬라비아공산당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미제의 압살책동을 단호히 물리치고 사회주의수호에서 반드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리라는것을 굳게 확신한다.

6. 25-7. 27. 27. 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마쉴리프공산당 당 위원장 레. 사브틀로브가 18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미제가 1950년 6월 25일 창건된지 2년도 안되는 청초한 조

하여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미국은 조선전쟁이 끝난지 6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조선을 반대하는 군사적도발책동에 매여 달려고있다.

따위끼리서만공산당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 세력의 책동으로부터 자주권을 수호하려는 조선노동당과 조선 인민의 투쟁에 언제나 굳은 지지와 연대성을 보낼것이다.

6. 25-7. 27. 27. 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6월 30일부터 7월 16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와 지역구에서 인터넷에 특집하였다.

도이쉴란드반제연단 인터넷 트롬페지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세계는 오늘 미국의 압살책동과 전횡에 완강히 맞서나가는 나라의 오직 조선뿐이다. 미국이 세계를 지배한다면 미국을 위락파락하는것은 조선이라고 격찬하고있다.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트롬페지는 《조선전쟁의 교훈: 미국의 힘은 만능이 아니다》 등 제목의 글들을 게재하였다.

《조선중앙통신》